



보도 일시	2022. 10. 13.(목) 15:00 < 10.14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3.(목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 임미정 (044-203-5222)

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민-관이 손잡다

-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」 발표 -

-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민-관 상생협약 체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창양 장관)는 10.13일(목)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,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산업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 담당국장,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,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,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,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·바이오에너지·자동차·항공·조선·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하였다.

< 행사 개요 >

◇ 일시/장소 : '22. 10. 13(목) 15:00 ~ 16:00 /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

◇ 참석자

- (정부) 산업부 이창양 장관,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, 국토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, 해수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
- (기관)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
- (업계) 정유·바이오에너지·자동차·항공·조선·해운업계 대표
 - 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 사장, 한국조선해양 안광현 사장, SK에너지 노상구 전략운영본부장,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외 석유협회, 바이오에너지협회, 자동차협회, 항공협회, 조선해양플랜트협회, 해운협회 및 업계 대표기업* 임원

* SK에코프라임, 현대자동차,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HMM, 시노코 쉽매니지먼트

◇ 주요내용 : ① 상생 협약식 ②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」 ③ 의견청취·논의

□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*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,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그간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와 소통을 거쳐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* (정의)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,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, 기존 내연기관·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⇨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% 대체하여 사용

** (예시) 바이오디젤, 바이오중유, 바이오가스,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선박유 등

○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특히 전기 등으로 연료를 직접 대체하기 어려운* 반면에 관련 국제환경규제**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·해운산업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며,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석유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동체가 크고, 장거리 수송용으로써 높은 에너지밀도의 동력원이 필요한 분야

** (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) '27년부터 탄소감축상쇄제도(CORSIA) 의무참여 시행, 온실가스 초과배출시 항공사에게 배출권 구매 등 비용발생

(국제해사기구(IMO)) '23년부터 현존선에 탄소집약도 감축의무 부과 예정이며, 탄소배출 감축목표('08년 대비 '50년까지 70% 감축)도 상향 추진 중

□ 금번 정부가 발표한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하여, 현재 '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*'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,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**하여 의무혼합비율을 '30년까지 당초 목표 5.0%에서 8.0%까지 상향한다.

*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(RFS: Renewable Fuel Standard):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

- 의무혼합비율: (현재) 3.5% → ('30년) 당초 5.0% → 확대 8.0%

** 동·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여 생산하며,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하여 혼합 가능

- ②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(바이오항공유 '26년, 바이오선박유 '25년 목표),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.
- ③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,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·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. 또한,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·조달이 가능토록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.
- ④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,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*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'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.

* (주요과제(안)) ① 폐기물·미세조류 등 지속가능한 원료 발굴 ② 바이오연료 생산 효율 증대 ③ 바이오연료 생산과 연계한 바이오납사 등 바이오소재 생산기술 등

- 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-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'상생 협약*'을 기초로 '민-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'를 구성하여 금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·추진해 나간다.

*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상생에 관한 협약서」
- 석유관리원, 에너지기술연구원, 에너지기술평가원, 석유협회, 바이오에너지협회, 자동차산업협회, 항공협회, 조선해양플랜트협회, 해운협회

□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“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,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의지를 모은 것은 매우 뜻깊다” 고 격려하면서,

- “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,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” 고 밝혔다.

참고

상생 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 계획

□ (일시/장소) '22.10.13(목) 15:00~16:00 /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(20층)

*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

□ (참석) **정부** 산업부(장관), 국토부, 해수부

기관 석유관리원, 에너지기술연구원, 에너지기술평가원

업계 석유협회, 바이오에너지협회, 자동차협회, 항공협회,
조선협회, 해운협회, 주요 기업

□ (주요내용) ① 바이오연료 관련 9개 기관 및 협회 상생 협약 체결식

②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」 발표

③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·토론

□ (진행 시나리오(안)) * 인사말씀까지 공개

시 간	내 용	비 고
15:00~15:05 ('05)	상호협력 및 상생 협약 체결식	
15:05~15:08 ('03)	기념 촬영	
15:08~15:13 ('05)	인사 말씀	장관
15:13~15:28 ('15)	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」 발표	석유산업과장
15:28~15:58 ('30)	참석자 의견 청취·토론	(참석자 전원)
15:58~16:00 ('02)	마무리 말씀	장관